

# 평 화 선 언

피폭 69년의 여름, 타는 듯한 햇빛은 ‘그날’로 기억의 시간을 되돌려 놓습니다. 1945년 8월 6일. 한발의 원폭으로 초토화된 히로시마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하루에 수 만 명의 죄 없는 시민의 목숨을 잃고, 그해에만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참화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피폭자의 증언을 들어 주십시오.

건물소개작업에서 피폭하여 죽어간 소년·소녀 약 6,000명. 당시 12살이었던 중학생은 “지금도 전쟁, 원폭의 상흔은 나의 몸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동급생 대 부분이 즉사하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었던 동급생을 생각하면 나만 살아 남은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살아 남은 피폭자도 지금까지 심각한 심신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 좀 주세요.” 죽어가는 목소리가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당시 15살의 중학생. 건물소개작업에서 피폭하여 얼굴은 심한 화상으로 부어오르고, 눈썹도 타고 교복도 열선으로 누더기가 된 하급생의 간청에 “중상자에게 물을 주면 죽는다.”고 하여 “뭇 들은 칩 하고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다면 물이라도 마음껏 마시게 해 줄 것을”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처절한 체험으로 과거를 별로 들추려 하지 않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 조금씩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잔혹한 진실을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는 원폭 고아는 폐허가 된 거리에서, 다리 밑에서, 무너진 건물 귀퉁이에서, 방공호 등에서 형겅꼬가리를 걸친 채 살아가며 먹기 위하여 흙치고, 싸우고, 교육도 받지 못해 폭력배 밑에서 간신히 살아간 어린이들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또 피폭 직후 생사를 헤매고 그 후에도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불안으로 고통받은 당시 6살의 국민학교 1학년생은 “젊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두 번 다시 같은 체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전쟁 희생자와의 교류를 통하여 느낀 “젊은 사람들이 세계의 친구들을 만드는 것, 전쟁문화가 아닌 평화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의 소중함을.

어린이들로부터 따뜻한 가족의 애정과 장래의 꿈을 빼앗고, 인생을 크게 뒤틀어 버린 ‘절대악’을 이 세상에서 없애기 위하여 위협과 살인, 증오의 연쇄를 낳는 무력이 아닌, 국적과 인종, 종교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람과 사람의 연대를 소중히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히로시마는 세계의 모두가 이러한 피폭자의 마음을 이어받아 핵병기 철폐와 세계평화실현의 길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날’의 처참했던 지옥과 피폭자의 인생을 자신의 가족이 당했다면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핵병기가 없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피폭자와 함께 이를 전하고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저희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가맹도시가 6,200을 넘어선 평화수장회의에서는 세계 각지에 설치한 리더 도시를 중심으로 UN 과 NGO 등과도 연대하여 피폭의 실상과 히로시마의 염원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병기의 비인도성에 초점을 맞추어 비합법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착실히 추진하여 2020년까지 핵병기 철폐를 목표로 핵병기 금지조약의 교섭 개시를 요구하는 국제여론을 확대합니다.

올해 4월, NPDI(군축, 불확산 주창) 히로시마 외상회의는 ‘히로시마선언’을 통하여 세계의 위정자에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방문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호소에 부응하여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하여 핵보유국의 위정자 여러분은 조기에 피폭지를 방문하여 피폭의 실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핵병기는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절대악’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절대악’에 의한 비인도적인 위협으로 나라를 보호하는 것을 그만두고 신뢰와 대화에 의한 새로운 안전보장체제를 전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정부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냉엄해지는 지금이야말로 일본국 헌법의 숭고한 평화주의를 바탕으로 69년간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명실공히 평화국가의 길을 걸어, 각국 정부와 함께 새로운 안전보장체제 구축에 공헌함과 동시에 장래의 NPT 재검토회의를 향해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다리역할로 NPT 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또한, 피폭자를 비롯하여 방사선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까지 이상으로 한발 다가가 따뜻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검은 비 강우지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원폭 희생자의 영령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절대악’ 핵병기 철폐와 세계 항구평화실현을 위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과 함께 진력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4년 8월 6일

히로시마시장 마쓰이 가즈미  
번역 : Ability InterBusiness Solutions, Inc.